

■ 세 미 나

최근 3년 동안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원저 분석

송 찬 희

가톨릭의대

1. 서 론

가정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가정의학은 주로 단과 전문의들이 담당해 왔던 1차 진료를 보다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 진료영역으로 발전시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1차 의료 영역에 있어서 올바른 연구방법이나 그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방향 제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가정의학이 1차 진료의 전문영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연구성과와 학문적 성숙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1999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총 270편의 원저를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기관, 연구대상 선정, 연구방법설계, 통계기법,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의 연구 수준과 주요 연구영역 및 최근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문 편수와 연구영역

학회지에 실린 논문 편수는 99년 75편, 2000년 89편, 2001(11월까지) 106편으로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 영역은 99년도 만성질환, 임상행동의학(흡연, 음주), 학생·전공의 교육, 임상비만(영양포함) 순이었고, 2000년도는 정신건강(불안, 우울,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 만성질환, 여성의학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인 2001년도에는 평생건강관

리, 만성질환, 여성의학, 임상비만, 지역사회의학(감염병, 역학포함)분야의 연구가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2000년과 2001년도에 걸쳐 평생건강관리 분야의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많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가정의학과가 담당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대상자 모집과 연구진행에 용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연구기관 및 연구대상 선정

가정의학의 영역이 1차 진료임을 고려할 때 연구 또한 지역사회의 1차, 2차 의료기관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연구 성과를 낸 것은 매우 드물어 3년 동안 전체 논문의 1.5%에 불과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단 한편도 실리지 않아 3편의 논문이 실린 비의료기관과 비교할 때도 좀더 적극적인 연구참여가 아쉽다 하겠다. 이에 비하여 3차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99년 76.0%, 2000년 89.9%, 2001년 84.0%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기관의 소재지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60.4%) 되는 현상을 보여 지역사회의 1, 2차 의료기관의 연구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단계에서의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어려우므로

일부 대상자를 표본 추출 하여 연구를 시행하게 되는데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층화 무작위 추출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난 3년 동안 실린 가정의학과 원저분석 결과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시행한 논문은 총 4편으로 전체 논문의 1.5%를 차지하였으며 단층화를 함께 시행한 논문은 단 한편에 불과하였다. 연구 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6%이었으며, 나머지 95.9%, 259편의 논문은 외래, 검진센터, 보건소 등을 방문한 환자나 자원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대상자를 쉽게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러한 연구 대상자 선정은 99년도 98.7%, 2000년도 96.6%, 2001년도 93.4%로 미미하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 선정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선정과 함께 논문의 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연구 설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연구방법은 무작위 이중맹검법 및 전향적 연구이지만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연구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들도 단면연구가 압도적 비율로서 전체 논문의 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호트 연구와 환자사례 보고가 각각 6.7%, 1.9%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코호트 연구논문이 14.2%로 99년 및 2000년도의 각각 1.3%, 2.2%보다 월등히 증가하여 앞으로 코호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 시행 과정에서 무작위, 무작위 이중맹검법, 환자대조군 등의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해 본 결과, 이중맹검없이 무작위로 대상자가 나누어진 경우는 3.3%, 무작위 이중맹검법을 시행한 경우는 0.7%, 환자대조군 연구는 5.9%로서 연구시행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연구설계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방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설계와 함께 연구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대상자에게 시험적 처치가 행해진 경우는 총 4편으로 IRB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학윤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

가정의학회지에 실리는 원저들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은데 이 경우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립여부가 밝혀져야 하며, 국외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 국내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번역이 원래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3년 동안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원저 중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이용한 연구는 전체의 52.2%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만 포함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의 기초자료만 설문지로 조사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 중 국내에서 개발된 설문지는 63.8%, 국외에서 개발되어 번역한 후 사용된 설문지는 42.2%의 비율을 보였는데, 국내 개발 설문지 중 국외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 작업을 거친 경우 국내 개발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이들 연구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확인된 설문을 사용한 논문은 31편으로 22.0%, 신뢰도 또는 타당도만 확인된 경우는 각각 5.0%와 2.8%를 차지하였고, 두 가지 모두 확인이 안된 경우는 모두 99편으로 70.2%의 비율을 보였다.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 번역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역상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는 총 7편으로 국외 설문지를 사용한 전체 논문의 13.7%이었다.

7. 결 론

1980년 가정의학회지가 창간된 이후 가정의학 영역의 연구들은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원저 분석을 통하여 아직까지 취약점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의학회지에 실리는 연구논문들이 보다 수준 높은 1차 진료 영역의 연구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된 연구를 보완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1, 2차

송찬희: 최근 3년 동안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원저 분석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의학회지에 원저를 실코자 하는 연구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설계를 위하여 더 한층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우수 연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올바른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